"절 찾아온 대중 돌아갈땐 佛心을"

관광사찰은 문화포교 도량

'97 문화유산의 해

조계종은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전체 문화재의 70%를 차지하는 불교문화유산을 바로 알고 쉽게 알린다는 취지로 문화재를 간직한 '관광사찰'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발표했다. 그 1차 사업으로 사찰안내 전단을 배포하고 전문가의 안내활동도 권장할 계획이다. 사찰안내 전단은 문화재에 대한 설명 뿐만 아니라 불교상식을 담아 포교효과도 기대하게 한다. 관광사찰 포교에 대한 종단차원의 포교지침이 마련된 것을 계기로 관광사찰을 포교전진 기지로 삼는 적극적인 포교 활성화 방안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 '관광사찰'은 포교의 전진기지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사진은 해인사로 수학여행 온 어린이들.

명산에 명찰(名山 名刹). 심산유곡 풍수가 수려하고 역사가 깊은 곳엔 반드시 사찰이 있다. 게다가 국보 보물급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관광사찰'은 훌륭한 볼거리이면서 정신휴식처이고 그 자체로 역사와 문화의 산 교육장이 된다.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맞아 레저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 현대인의 생활패턴이 삶의 질을 찾고 있는 현실은 망락철이 아니더라도 사시사철 명승지에는 인파로 붐빈다. 특히 올해는 '문화유산의 해'여서 문화유적지의 관광객 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 59개 관광사찰(조계종 57개 태고종 2개)에는 연간 약 3천만명(내무부 통계 약 3천1만명)(**도표 참조**)의 입장객이 몰려들고 있다. 이 수치는 자연스럽게 절을 찾는 인구이며 불교는 앉아서 그 엄청난 인파를 맞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불교는 이들 3천만명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새로운 포교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이 수치에는 불자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막연한 불심을 구체화 하고 '무심(無心)'한 대중에게는 불교를 심어주는 포교전략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요즘은 아이들 교과공부를 위해서도 주말이나 휴가때는 대부분 유적지와 고찰에 갑니다. 그러나 막상 그 사찰에 가서는 유물 유산에 대해서조차 안내판이 없으니 절이 지닌 정신적 종교적 의미는 전혀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불자임에도 문화재사찰의 방치된 포교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크다는 박중선씨(36세, 회사원). 비불자는 더하다는 것. 사찰에서의 예절은 기대할 수도 없고 그저 유물에 대해 안내문조차 없는 박제된 전시품 감상하듯 '쓱' 보고간다는 것이다.

물론 사찰의 관광지화에 대해 신성해야 할 사찰이 오염돼가고, 수행분위기를 해치기도 하며, 불교가 상품화 되어가고 있다는 비관적인 시각도 있다. 또 관광지화 과정에서 사찰이 갖는 고유한 사상과 특색을 고려하지 않고 관광수입을 올리려는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는 행정정책으로 편중돼왔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시대에 접어든 현실은 가장 한국적인 민족의 얼과 정신을 간직한 문화재사찰에 대한 관광단지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관광사찰을 포교의 환경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관광사찰 스스로 예산의 상당부분을 포교비로 지출해야 하며, 종단차원의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관광사찰의 관람료는 조계종의 경우 총수입의 30%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총무원과 공동예치하고, 12%는 종단분담금으로 총무원에 내며, 5%는 중앙승가대 이전불사를 위해 2001년까지 교육분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어 나머지 53%정도를 사찰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이 포교혁신안으로 기획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본사급 등 주요사찰의 상임포교사제이다. 현재 관광사찰의 대부분이 포교에 대해 전담부서를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종단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제도적으로 포교사로 임명, 상주케해 활용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포교 프로그램과 교재의 개발도 개별 사찰에서 뿐만 아니라 종단차원에서 집중적이고 꾸준히 제시하며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광객을 상대로 홍보 포교용 인쇄물을 배포하는 곳도 찾기 힘들다. 나아가 문화유적을 활용한 책자 엽서 등 사찰문화상품도 개발도 절실하다.

"사찰 경내의 안내게시판도 현재처럼 문화재에 대한 이해위주에 머물것이 아니라 그 문화재가 갖는 종교적 의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신행답사를 이끌고 있는 김현준씨(불교신행연구원 원장)의 설명이다. 사찰문화유산 기행행사를 벌였던 김희균씨(월간 대중불교 주간)는 "도량 곳곳에 사찰 참배요령이나 교리를 담은 별도의 게시판을 도량과 어울어지게 제작해 설치하는것도 좋겠고, 단 몇시간일지라도 참선할 수 있는 관람객을 위한 참선방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당한 공간에 비디오시설을 갖춰 사찰안내 유물설명등이 이뤄지는 시청각포교도 바람직하다.

문화유산의 해를 기해 관광사찰 포교는 해당 사찰뿐만 아니라 종단차원의 집중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이 수립돼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관광사찰은 투망에 든 포교의 황금어장이기 때문이다.

위영란 기자

전국 58곳 한해 3천만명 '구경 발길'

상임포교사제 급선무 … 안내책·문화상품 보급도

〈지역별 관광사찰 연간 입장객 수〉

(96년 내무부 통계자료)

소재지	사찰	입장객 수	비 고
부산	범어사	336,174	금정산
대구	동화사	593,931	팔공산
대구	파계사	91,554	팔공산
달성	용연사	39,206	
광창	월정사	672,083	오대산국립공원
양양	낙산사	1,308,764	
속초	신흥사	2,892,444	설악산국립공원
원주	구룡사	532,835	치악산국립공원
춘천	청평사	131,809	오봉산
강화	전등사	604,581	마니산
여주	신륵사	340,141	
양평	용문사	543,381	용문산
화성	용주사	45,175	
동두천	자재암		소요산
보은	법주사	1,441,760	속리산국립공원
공주	갑 사	408,070	계룡산국립공원
공주	동학사	1,055,747	계룡산국립공원
공주	마곡사	197,284	계룡산국립공원
부여	고란사	762,421	
예산	수덕사	214,851	덕숭산
논산	관촉사	174,876	
부여	무량사	16,773	
공주	신원사	42,059	계룡산
김제	금산사	421,971	모악산
부안	내소사	236,802	변산반도국립공원
완주	송광사	34,138	
고창	선운사	425,095	선운산도립공원
남원	실상사	55,889	지리산국립공원
정읍	내장사	964,880	내장산국립공원
무주	백련사	964,880	덕유산국립공원
진안	마이산 탑사	624,481	마이산도립공원
영암	도갑사	59,514	월출산국립공원
여천	흥국사	37,581	
순천	송광사	419,005	조계산
순천	선암사	178,234	조계산
구례	화엄사	721,897	지리산국립공원
구례	천은사	697,506	지리산국립공원
구례	연곡사	128,512	지리산국립공원
해남	대흥사	321,100	두륜산
장성	백양사	500,718	내장산국립공원
영주	부석사	218,472	소백산국립공원
청송	대전사	501,404	주왕산국립공원
영주	희방사	182,496	소백산국립공원
영천	은해사	138,444	팔공산
울진	불영사	107,228	천축산
경주	불국사	2,424,910	
경주	석굴암	1,725,788	토함산
경주	분황사	244,066	
경주	기림사	292,773	
포항	보경사	362,694	내연산
청도	운문사	255,918	가지산
김천	직지사	563,995	황악산
울주	석남사	216,462	가지산
밀양	표충사	428,192	천황산
양산	통도사	991,511	영축산
양산	내원사	178,810	영축산
하동	쌍계사	339,451	지리산국립공원
합천	해인사	832,439	가야산국립공원
고성	옥천사	131,140	
총계	59개	30,010,938	26,500,000 (94년 집계)

나의 수행일기

이재순 〈건국대교수·기계공학〉 (下)

지금으로부터 7~8 년전 홍수 때문에 하안거 해제때 3박4일간의 정진기일을 늦추어 7월에 한다는 소식을 듣고 태안사에 전화를 걸어 법회 참가 허락을 받고 난생처음 남원땅을 밟았다. 절에 도착해 점심공양을 하고 청화 큰스님을 친견하기 위해 토굴로 찾아갔다. 상단에 앉으셨던 큰스님이 밑으로 내려오시더니 내 손을 잡으면서 도반이라 부르며 환대를 하셔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 그때 청화스님의 은사 스님이 지었다는 책 한권을 선물 받았는데 전부 숫자였다. 지구의 직경이 얼마고 달까지와 거리가 얼마냐 하는 수개념사실이 많았는데 현대 물리지식과의 수치 차이는 있었지만 놀라운 일이었다. 선정에 들어가서 본 수치라는 것이었다. 오후부터 대청 마루에 보기장을 치고 그안에서 참선했다.

내가 지정받은 자리는 하필 둘째 줄 중앙에 청화 큰스님 바로 뒤였다. 숨소리 조차 조심스러웠고 반가부좌한 다리가 저려서 다리를 바꾸려고 하는 조그만한 소리도 조심스러웠다. 선이 아니라 고역중의 고역이었다. 저녁 공양후 다시 보기장 안에서 염불선을 하였다. 염불선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옆사람에게 물으니 아미타불을 화두로 하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 큰스님 강의와 계속되는 염불선으로 3박 4일이 지났다. 서울로 올라올 때는 그렇게 기분이 좋아 날아갈 것 같았다. 그때 청화스님께 큰 빚을 졌다고 느껴졌다. 선물받은 책때문이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나도 책을 한권 써야겠다고 결심하고 쓴 것이 〈연소 공학〉이다. 이 책이 시중 출판한 4번째 책이다. '연소공학'이라는 과목은 있는데, 학부학생때 쉬운 교재가 없어 고심끝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불교에 발을 들여놓은 뒤 불교 관계서적을 수백권 사 보았다. 내 전공에 버금갈만큼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공부하였다. 그런데 공부하면 할수록 오리무중이다. 무아, 업, 윤회사상 등 기본사상들도 여러책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어 혼란스럽다. '고(苦)'의 해결을 위해 '무아'를 주장했으면 업을 받고 윤회하는 주체는 무엇인지 딱 부러지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무명업장 녹이자" 날마다 다짐

불서 수백권 탐독 … 아직도 교리 쉽지않아

〈법화경〉 관세음보문품은 기독교신앙의 유일신과 무엇이 다른가. 기독교와 같은 유일신 종교는 교리가 단순하여 교세가 쉽게 확장된 것 같다. 그래서 불교에도 관음신앙이 널리 퍼져 있는지도 모른다. 일반 절에서 무아니 업이니 윤회의 주체 등 교리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관세음보살의 구원을 더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윤회의 주체에 대해서 〈밀린다왕문경〉에 불꽃의 예와 강물의 흐름의 예를 들어 설명해 놓았지만 쉽게 이해될 수는 없는 것 같다.

얼마전에 친한 박거사와 같이 등산을 한 일이 있다. 그 분은 불교 입문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불교 교리공부도 깊이 한 분이 아니었다. 여러 가지를 물었다. 무명을 깨쳐서 허공같은 자기 본체를 우주의 허공과 한통속이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 하면 내가 관세음이 되고, 지장보살 하면 내가 지장보살이 되는 절대의 경지를 약간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마조의 '할!' 황벽의 '방!'이나 '여시(如是)'라는 말도 절대자리를 가리키는 말이니 여시도 할 수 없이 여시이다. 따라서 이런식으로 여시 이외에 절대 위치를 가리키는 더 좋은 낱말이 있어도 말로는 알수 없는 일이고 또,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 해줘도 소용없고 본인이 직접 화두 참구하여 부지런히 닦으라고 말해주었다. 첩첩이 쌓인 무명업장이 다소나마 녹아내려 밝은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끔 된 것이 다 부처님 은혜라 생각한다. 더욱 부지런히 정진하여야 겠다는 다짐을 날마다 해본다.

'불교는 없는 진리를 새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실제 있는 진리를 발견한 것이니 이 교리가 명백하게 이해되도록 할 수는 없는지', 또 '깨치는 것은 어렵겠지만 왜 이치로는 쉽게 설명이 왜 될 수 없는 것일까' 곰곰히 생각해 본다.

1997학년도 신입생모집요강

1982년 설립되어 불교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본 대학은 종합적인 불교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추고
뜻 있는 불자들의 입학을 바랍니다.

1. 모집내용

학 과	교 육 내 용	인 원	비 고
불교학과	불교교리 · 경전 및 포교과목을 교육	○○명	2년제
범 패 과	전통불교의식인 상주권공을 교육	○○명	〃
불교미술과	전통회화 및 불교미술 교과를 교육	○○명	〃

2. 응시자격(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2) 불교 강원 사교과 이상 수료자
(3)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3. 전형방법 : 필기시험(불교상식, 공통), 실기시험(불교미술과) 및 면접 (공통)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7년 1월20일~2월21일
(평일은 10:00~17:00까지, 토요일은 14:00까지, 공휴일은 휴업함)

5. 전형일자 : 1997년 2월 23일(日) 10:00~17:00

6.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 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4)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1부
(7) 반명함판 사진 6매
(8) 전형료 : 30,000원

7. 참고사항
(1) 본 대학 이수자엔 태고종단의 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함.
(2) 강좌는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개설함.
(단 범패과 전공과목은 야간에 개설할 수 있음)
(3) 기숙사 운영(지방 학생은 문의 바람)

편입생(불교학과 통신과정 포함) 모집 요강

기존의 동방불교대학은 폐지되어 2학년 내지 3학년의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1. 응시자격
(1)본 대학 2년 수료자 (2) 강원 대교과 수료자
(3) 정규대학 졸업자(불교미술과는 미술대학 졸업자) (4)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2. 참 고
(1) 응시자의 수학 정력에 따라 2학년 또는 3학년에 편입토록 함.
(2) 통신생은 월 1회(1박2일 또는 2박3일)의 출석교육을 이수해야 함.
(3) 4년제 이수자에겐 중앙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며, 태고종단 승려에겐 중덕법계를 품수케 함.

■ 원서교부 및 접수처
(1) 본 대학 교학처 (☎763-0229, 8536)
(2) 태고종 총무원 (☎745-2030~2)
(3) 태고종단 각 교구 총무원
(4) 경서원(조계사앞 ☎733-3345)

東邦佛敎大學
佛敎學科 · 梵唄科 · 佛敎美術科

(우)136-012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92-1
전화 : 763-0229, 763-8536